

# 코오롱, CNT 기술 NASA가 인정

복합체기술로 NASA 최고 명예상 수상 ... 균일분산기술 획기적 개선

코오롱이 탄소나노튜브 관련기술로 NASA에서 수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코오롱은 탄소나노튜브(CNT)의 복합체 제조 관련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항공우주국(NASA) 최고 명예상인 <Whitcomb & Holloway Technology Transfer Award>를 받았다고 6월11일 발표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GE나 록히드마틴 등 미국에 생산기반을 둔 기업이 아닌 해외기업이 수상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2007년 NASA와 함께 <CNT 복합체 제조에 관한 기술> 개발에 착수해 CNT 상업화의 최대 난제인 균일분산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균일분산기술을 활용한 투명 전극소재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스마트 윈도우 등 유연 전자(Flexible Electronics) 전반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1>